

# “미래 신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

## 2025년 광양시 현황·주요 역점사업

### #현황

- 인구수 15만6837명
- 예 산 1조1794억원
- 직원수 1150명

### #역점사업

-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 조성
-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사업 추진 및 시스마트아이키움플랫폼 구축
-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산림박물관 개관,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
-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임신 지원금·난임부부·중증질환자 교통비 신설
- 옥곡 신금2 일반산업·광양 죽림 농공단지 개발, 광양체인지업그라운드 개관, 광양상설 시장 증축사업
- 광양형 스마트팜 운영·확대, 창농미디어센터 운영, 신소득 작목 육성, 백운산 발효촌 등 치미 마을 및 친환경 농업단지·과수채소 단지 조성



## 2025 새해설계

## 정인화 광양시장

이차전지·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백운산 산림박물관 상반기 개관  
광양형 스마트팜·청년농대 운영  
임신·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확대

“새해에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광양을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7일 신년사를 통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확충, 청년에게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다지는 새해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을사년 포부를 밝혔다.

먼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민생 활력을 위해 이차전지와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소재산업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이차전지 소재부품 직접 재 활용 기술 기반 구축사업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순천대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를 내년까지 준공, 2년차를 맞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으로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소재 분야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정 시장은 “광양만권 소재 부품 지식산업센터와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개소로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과 고도화를 극대화하겠다”며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과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쾌적한 근로 조건과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옥곡 신금2 일반산업단지와 광양 죽림 농공단지 개발에도



정인화 광양시장

속도를 내 신규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생태 관광지인 백운산권 산림박물관을 상반기에 개관하고 백계산 동백정원은 연말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발전을 모색한다.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사업과 도선국사 사당수련관 건립 사업 역시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백운산의 가치를 담은 토종식물원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집합 관광지인 구봉산권은 숲속 야영장을 상반기에 개장하고, 구봉산 체류형 조형물을 올해까지 설치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 통합주차장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주)LF리조트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도 착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광양형 농업 혁신 모델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광양형 스마트팜과 청년농업대학 운영으로 첨단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창농미디어센터를 통해 창의적 농특산물 마케팅 기법을 습득하게 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 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기반 확충과 재배 환경을 개선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정 시장은 “발효식품 아카데미를 운영해 매실 식초 등 발효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백운산 발효촌 등 치미 마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며 “친환경 농업단지와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인증비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서는 임신 지원금과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새로 시행하고, 출생장려금 지원 대상과 요건을 완화한다. 연말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어린이집 AI푸드 스캐너 도입으로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이키움센터를 확대해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을 도입, 개인별 디지털 맞춤형 학습서비스인 AI 스마트아이키움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해 교육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했던 ‘광양 감동데이’, ‘화목 대화’, ‘시정감감토크’, ‘시민과의 대화’, ‘현장 소통의 날’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당면한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전국 최초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암 등 1회당 7만~10만원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외 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은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관외 진료를 받은 18세 미

만(2007년생까지) 아동이다.

지원 금액은 관외 진료 1회당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10만원,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7만원으로,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을 통해 광양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진료 신청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양 시보건소건강증진과(061-797-4049)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읍 14개 기관·단체, 장애 가구에 합동 봉사



광양시 광양읍 14개 기관·단체가 주거 위기에 놓인 장애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협업 봉사 및 후원 활동을 펼쳤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 지역 내 14개 기관·단체가 주거 위기에 놓인 장애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협업 봉사 및 후원

물건으로 바뀌벌레, 악취, 누수 문제가 심각했으며 곰팡이가 피고 천장 자체가 탈락하자 거주지를 벗어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움 요청과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방역, 주거정소, 쓰레기 반출, 도배장판, 생활용품 지원을 진행했다.

방역과 청소지원 활동, 도배·장판, 전등 교체, 전기점검 등을 펼친 기관·단체는 △(유)우주환경 △광양동백로타리클럽 △광양중앙로타리클럽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양드림라이온스클럽 △한국해비타트 전남동부지회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등이며 이국기(포스코 광양제철소), 손정준(해병대팔각회)씨를 포함한 20여명도 힘을 보탰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여성문화센터, 73기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광양시 여성문화센터는 제73기 문화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문화대학에서는 수강생의 다양한 요구와 최신 경향을 반영해 펫푸드 교실, 인공지능(AI) 기초 활용 교육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과목은 줄였다.

또 인기 강좌인 흠패션(오후), 집밥요리(야간)반을 확대하고 희망 과목인 하모니카 강좌를 새롭게 개설하는 등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제73기 문화대학은 실버놀이지도사·미용사·도배기능사 등 자격증 과정(13과

목)에서 231명을 모집하고 펫푸드 교실·흠패션·경매 기초 등 기술창업과정(10과목)에서 185명을 모집한다.

이어 하모니카·생활수목화와 플러스펜화·수채화 등 문화취미과정(10과목) 192명, 집밥요리(야간)·파워스피치(야간) 등 야간과정(4과목) 80명을 모집한다.

문화대학 교육대상자는 광양시 거주자이며 교육 기간은 오는 2월3일부터 5월2일까지다. 수강료는 3개월에 주당 수업 시간에 따라 3만원과 4만5000원으로 구분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대상자 45세까지 상향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총액 54억원, 지원 대상자 수 1329명을 달성하는 등 객관적인 수치와 10년의 최대 지원 기간 모두 전담을 넘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주거 안정 정책 등에 힘입어 실제 광양시 인구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한 광양시는 외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한다.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1995,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